

# 오지 않는 외국인... 노력 없는 광주·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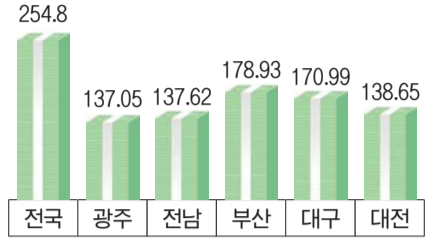
### 쇼핑·숙박 등 관광인프라 부족...방문객 4년 연속 0%대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 지난해 이어 광주 단 1곳 뿐 올 매출 1조2532억원...서울·부산이 독식 '남의 잔치'

광주·전남이 '외국인 관광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 방문비율은 팔찌 수준인 '0%대'를 기록했고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쇼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광주·전남 통틀어 단 1곳만 참가한 실정이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열린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광주 의상 전문쇼핑몰 '패션스타트' 등 913개 업체가 참여했다. 올해 매출액은 1조2532억원으로 지난해 행사(9007억원)보다 39% 증가했다. 2011년 시작된 이 행사가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지

난해에 이어 단 1곳뿐이었다. '코리아그랜드세일' 주최기관인 한국방문위원회는 올해 행사의 생산유발액은 2조 1369억원으로, 취업 유발은 2만8698명, 소득유발은 376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한 광주지역 기업은 북구 신안동 '패션스타트' 뿐이었고,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스타트'는 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열고 구매금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을 진행했다. 광주·전남의 저조한 참여율과 달리 참여 기업 10곳 중 7곳(73.2%)은 서울(567개)과 부산(102개)에 몰렸다. 제주(79개), 대구(59개), 인천(41개), 경기(18개), 강원(18개), 경남(11개), 경북(6개), 충북

### 외국인 관광객 1일 지출 경비

(2018년 기준·단위:달러)



(3개), 전북(3개), 충남(2개), 해외(2개)가 뒤를 이었고, 전남은 세종과 함께 유일하게 '0'을 기록했다. 한국방문위원회는 내년 1월16일~2월29일 열리는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 기업을 다음 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58만명을 돌파했지만 광주·전남 방문율은 4년 연속 '0%' 아래로 주저앉았다. 한국관광공사 '2019 외래관광객실태조사 1분기 주요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0%대'를 기록한 곳은 광주(0.8%)·전남(0.5%)과 세종(0.4%)이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100명 가운데 1명도 광주·전남을 찾지 않는 셈이다. 외국인을 위한 쇼핑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관광객이 쓰는 돈도 적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관광공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의 1일 평균 지출 경비는 광주 137.05달러·전남 137.62달러로 전국 평균 254.8달러(30만450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는 부산(178.93달러), 대구(170.99) 보다 턱없이 못 미쳤고 광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138.65)보다도 낮았다. 광주지역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 매출은 전체 매출의 0.1% 뿐"이라며 "쇼핑 공간 뿐만 아니라 교통·숙박·음식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형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주무르기 때문에 지역 유통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01.04 (+9.34) ↓ 금리(국고채 3년) 1.33 (-0.01)
- ↓ 코스닥 641.85 (-3.16) ↑ 환율(USD) 1195.70 (+1.70)

### 광주은행-현대아미스 제휴카드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은 지난 23일 본점 17층 대회의실에서 송종욱 은행장과 김우열 현대아미스(주)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휴카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광주은행과 현대아미스(주)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추진하고, 함께 상생발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협약했다. 특히 현대아미스(주) 제휴카드는 신용카드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이용 금액에 따라 업종별 0.5~2% 캐시백 또는 K포인트를 제공하며, 영화관 할인 및 금융수수료면제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아미스(주)는 2001년 설립된 건물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 업체로서 20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대표 중견기업이다. 또한 지역의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한 공헌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동시에 받은 바 있다. 광주은행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이번 제휴카드 출시를 통해 현대아미스(주)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회사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기업과 상생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지역의 유망 업체를 발굴하여 제휴카드 협약을 통해 특별 금융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전남 中企 150만달러 수출 계약

#### 한국무역협, DJ센터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4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150만달러(18억원 상당)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뷰티, 가전, 생활, 의류, 기자재, 식품 등을 생산하는 광주지역 77개 업체가 참가했다. 또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UAE 등 9개국 37개사 39명의 해외 바이어가 초청됐다. 맞춤형 피부관리기기 및 화장품 생산

하는 광주 기업 '오지헬스케어'(대표 강남영)는 베트남 KOSMEBOX와 50만달러 어치 수출을 현장계약 했다. 광주 전통김치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뜨레찬'(대표 윤경미)은 홍콩 코리언 코너와 화장품 제조업체 '필코스메틱'(대표 김양순)은 베트남 BIT Company와 각각 50만달러 상당의 MOU를 체결한다. 주동필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10년이 넘었다"면서 "올해도 해외 바이어와 광주기업 간



1:1 맞춤 상담회, 광주를 대표하는 우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시사회, 사전 매칭·검

증을 통한 현장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 공공임대 8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제때 못내

#### 광주 4037·전남 3719 가구...5년간 전국 1411명 강제 퇴거

광주·전남 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로 쫓겨난 세입자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14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수 73만6077가구다. 이 가운데 12.9%인 9만4908가구에서 임대료 328억 원을 내지 않았다. 광주는 3만5200가구 중 11.5%인 4037가구가 10억8100만원을 체납했고, 전남은 2만6681가구 중 13.9%인 3719가구가 10억4600만원을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 충북이 체납률 14.2%, 세종 14.1%, 중

남 14.0%로 유독 총체권의 체납률이 높았다. 경기(14.1%), 울산(13.8%), 경남(13.7%), 인천(13.3%)도 전국 평균(12.9%)을 웃돌았다.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9.1%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4.7%로 임대료 체납률이 가장 높았고, 5~10년 공공임대주택 11.7%, 50년 공공임대 11.6%, 영구임대 7.3%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강

제집행, 무단퇴거, 불법거주 등)가 최근 5년간 1411명에 달했다.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올해에도 8월말 현재 294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체납률이 10% 이상인 것을 불태, 체납 원인이 개인적 요인도 있지만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남도 전통시장 최고 맛집은 어디?

#### 중기청, 푸드쇼 내달 31일 목포서 예선...18일까지 신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전남도와 공동으로 전통시장 최고 맛집을 뽑는 '제4회남도 전통시장 푸드쇼'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푸드쇼는 전통시장의 맛과 멋, 이야기가 있는 먹거리를 지역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릴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4회째인 이번 푸드쇼에 참여할 시장상인은 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16팀(광주 8팀, 전남 8팀)이 다음달 31일 목포 문화예술회관 인근에서 예선을 치른다. 예선에서 선발된 8팀이 '광주·전남 전통시장 최고 맛집' 타이틀을 놓고 11월 중순 광주 전통시장에서 본선을 치른

다. 심사위원과 방청객이 현장 시식과 투표를 통해 대상 등을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1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광주시장상·전남도지사상 등 총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그동안 3차례 푸드쇼를 통해 최고의 맛집으로 선정된 점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매출은 평균 17%, 방문객은 평균 18%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namdoutour89@naver.com) 또는 팩스(061-921-9906)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